

# 내가 만약 노벨상 만든다면

한석윤 동시  
신순철 그림



연변인민출판사



# 내가 만약 노벨상 만든다면

한석윤 동시  
신순칠 그림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현순

책임교정: 리춘매

표지설계: 신순칠

### 图书在版编目 ( C I P ) 数据

如果我做诺贝尔奖的话/韩锡润 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7. 5

ISBN 7-80698-931-9

I. 如 . . . II. 韩 . . . III. 儿童文学—诗歌—作品集  
—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 287. 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065754号

## 如果我做诺贝尔奖的话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4.375 字数: 100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931-9 / I · 105 (民文)

版次: 2007年 5月 第 1 版 2007年 5月 第 1 次印刷

印数: 1—950 册 定价: 15.00元

---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 내가 만약 노벨상 만든다면

-머리글을 대신하여

내가 만약 노벨상을 만든다면  
아이들한테 줄 노벨상 만든다면  
나는 신나게 놀 줄 아는 아이한테 줄거야 . . .

노벨상에 덤으로 없는 상품도  
《오늘 하루는 마음껏 놀수 있음》  
대문짝만하게 만든 증명서 줄거야

풍풍, 빨과도 신나게 놀고  
한들한들, 쑥부쟁이와도 신나게 놀고  
움쭈움쭈, 소똥구리하고도 신나게 놀고

그날 창창 비가 쏟아지면  
절버덕절버덕 비물과 신나게 놀고  
그날 웁웁 바람이 세차면  
웁그댕그댕 몸뒤채며 놀고

그래, 그렇지, 그날만은

《엄마, 아빠, 선생님  
미안, 미안  
오늘은 뒤고방에 들어가주세요.》  
매들짝만한 자물쇠 질척 잠가놓고

그리고, 그리고 소리칠거야  
하늘이 터지게 소리칠거야  
《놀아라, 놀아  
오늘 하루는  
배터지게 실컷 놀아라  
너는 노벨상 받은 아이야!》

2006년 12월 31일 저녁 8시  
황금돼지해의 첫 종소리 기다리며

# 차 례

내가 만약 노벨상 만든다면(머리글을 대신하여)/1

## 콩깍콩깍 콩콩

콩꼬투리/2

겨울내물/4

콩콩/6

아기 눈물/8

상장타던 날/10

울창이망아지/12

커다란 입, 커다란 귀/14

솔바람/16

사시바람/18

그래서 말인데요/20

산절풍경/22

할머니생일/24

하나라구요/26

할머니 저가락/28

누굴가/30

## 초롱초롱 아침 맞는 장한 머루

산머루/34

살구나무싹/36

수탉/38

보름달/40

하루살이/42

대상받던 날/44

문을 닫은 하늘학교/46

하늘의 사랑/48

곱돌장사기/50

바다/52

아빠 눈은 회초리처럼/54

가족사진/56

달/58

구름아기연극단/60

6월을 위하여 5월은/62

## 파랑으로 된 해빛

- 어마어마한 입/66  
네가 꽃송이라면/68  
산에 가면/70  
개별/72  
오솔길/74  
겨울나무의 고백/76  
무지개○○9/78  
파랑해빛/80  
산과 강물/82  
산타할아버지/84  
메꽃/86  
병든 단풍잎/88  
대팔령의 산국화/90  
바다는/92  
공통분모○○3/94

## 아기단군님 울음소리

백두천지에서/98

락수물/100

장백산은 정화수 들고/102

연길장찌개/104

고향/106

할머니머리/108

모래알/110

가을풍경/112

철길/114

이슬방울/116

바다○○2/118

멋진 아빠/120

소나기/122

산골병아리/124

어른과 아이/126

콩깍 콩깍 콩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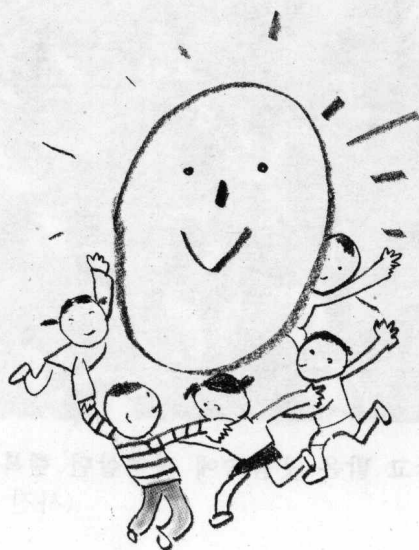
맑고 밝은 웃음속에 싸여살던 행복한 시각  
(사진 방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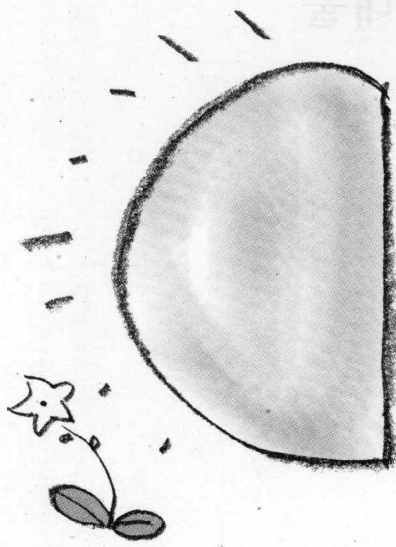
# 콩꼬투리

오손도손 즐쳐앉은  
콩알 오형제

엄마가 없어도  
심심찮겠다

반뜩반뜩 쏟아내는  
부러운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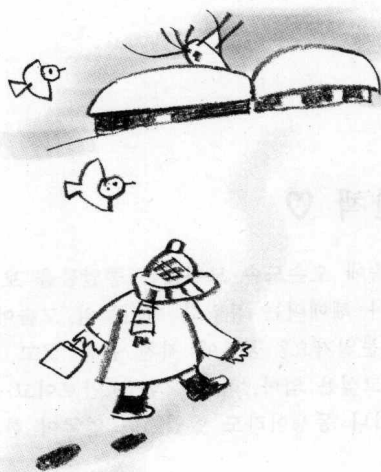
## ♡ 동시산책 ♡

콩꼬투리속에 오손도손 모여앉은 콩알들을 보노라니 이상스럽게 정을 찾아 헤매이는 불쌍한 아이들의 모습이 불쑥 떠오르는것은 무엇때문일가요? 공부에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가도 투정부러보고싶은 엄마, 아빠 모습은 안 보이고... 그런 아이들한테 손우 누나나 동생이라도 있었으면 얼굴이 한결 밝아지겠는데 말입니다.

# 겨울내물

출갓다  
얼음옷 입고 사는  
겨울내물아

새침등이  
피라미는  
얼지 않았나?





## ♡ 동시산책 ♡

초록별의 주인은 우리 인간만이 아닙니다. 내물도 주인이고  
피라미도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만이 주인인줄  
로 착각합니다. 자연이 없으면 우리도 지구에서 살수 없는데 말  
입니다. 퐁퐁 얼어붙은 겨울이 오니 돌돌 흐르던 내물과 꼬리치  
며 어리광 떨던 피라미가 그렇네요.

# 콩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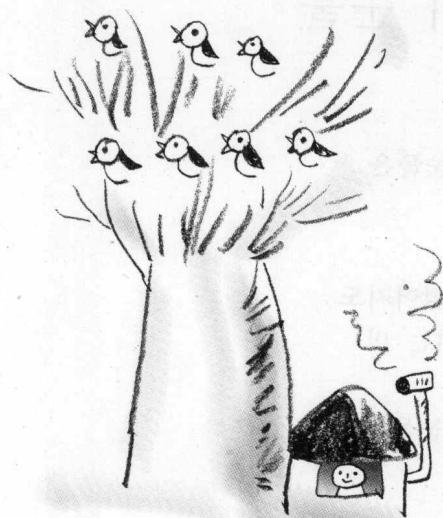
콩이라고 콩콩  
콩짜콩짜 콩콩

노란 콩도 콩콩  
까만 콩도 콩콩

콩이라고 콩콩  
콩짜콩짜 콩콩

춤을 춰도 콩콩  
노래해도 콩콩





## ♡ 동시산책 ♡

콩썩콩썩 뛰는 콩알을 본적이 있습니까? 된장을 만드는 노란 콩알이나 할아버지 약탕관속에 들어가는 감장콩알이나 모두 콩알이니까 다같이 콩썩콩썩 뛰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아이나 에디슨같이 유명한 발명가가 될 아이라 하여도 지금은 아이들이니까 다같이 콩썩콩썩 뛰며 행복한 동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 아기 눈물

아기 눈물은  
해비

똑똑 떨어져도  
반짝이는 비

아기 눈물은  
해비

한방울 두방울 떨어지다가도  
금방 개는 비

